

◀하나님의 하나님▶ 아들이, 인간다운 인간이 되거라
Rudyard Kipling (1865-1936)

모든 이들이 너를 의심할 때 스스로 자신을 믿을 수 있다면,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림에 지치지 않을 수 있다면,
거짓을 당해도 거짓과 거래하지 않고,
미움을 당해도 미움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꿈을 꾸되 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
네 일생을 바쳐 이룩한 것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보고,
허리 굽혀 낮은 연장을 들어 다시 세울 수 있다면,
네가 성취한 모든 걸 한 번의 승부에 걸 수 있다면,
그래서 패배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군중과 함께 말하면서도 너의 미덕을 지키고,
왕과 함께 걸으면서도 민중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1분의 시간을,
60초판권의 장거리 달리기로 채울 수 있다면....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네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너는 드디어 한 남자가 되는 것이다!

If you can trust yourself when all men doubt you
If you can wait and not be tired by waiting,
Or being lied about, don't deal in lies,
Or being hated, don't give way to hating
If you can dream--and not make dreams your maste
Or watch the things you gave your life to, broken
And stoop and build 'em up with worn-out tools
If you can make one heap of all your winnings
And risk it all on one turn of pitch-and-toss
And lose, and start again at your beginnings
If you can talk with a crowd and keep your virtue
Or walk with kings--nor lose the common touch
If you can fill the unforgiving minute
With sixty seconds' worth of distance run
Yours is the Earth and everything that's in it
And which is more you'll be a Man, my 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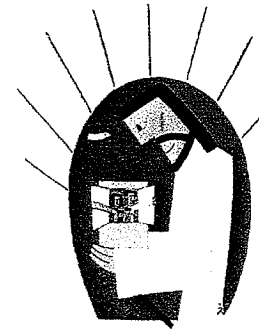


◀아름다운 인생▶ 대학농구 선수 "Brandon Watkins"

손과 다리에 기형을 갖고 태어나 양손의 손가락은 3개씩, 양쪽 무릎아래는 2살 때 수술로 의족을 달고서도 대학 농구선수가 된 '브랜든 왓킨스'. 그러면서도 시즌 20경기 중 3점슛 4개, 5 리바운드, 가로채기까지 한 그는 "난 하나님에게서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다"면서 자기 인생을 감사해 하였습니다. 그의 팀 감독은 "농구에 대해 내가 그에게 가르친 것보다 삶에 대해 그가 나에게 가르친 게 더 많다"고 하였습니다. 과거에 안고 태어난 자신의 불행을 오늘에는 무시하며 살 줄 알았던 그는 젊었지만 인류의 스승입니다.

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예수! 돈으로 살 수 없어 사랑으로 얻었다” (요13:35)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6권 49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5년 11월 27일
☎ 369- 5077.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www.calvary.org.nz		

추수의 계절 -박경희-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
어느덧 추수할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린 열심히 일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미처 행하지 못한
주님의 명령이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가난한 자에게 베풀라고 하셨건만 우리는
걸인들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칠 때가 많았습니다.
영육간에 아픔이 있는 자를 찾아가 위로해주라고 하셨건만
내 아픈 가슴만 쓸어안고 사느라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건만
성경책에 빨간 줄 긋는 행위 외엔 아무런 실천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십분의 일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도
생활비가 모자라 어쩔 수 없노라 변명하며 슬쩍 넘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그래서인가요?
우리 마음은 왜 이리 빈곤하고 가난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셔도 목마른 사슴처럼 이 세상이 채워주는
그 무엇으로도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내의 하나님, 이렇듯 아무런 행위도 드리지 않고 살아왔으면서
남의 집 공간에 가득가득 쌓인
성령의 가마니를 보니 부럽기만 합니다.
은총의 하나님, 지금까지는 명령을 어기며 살아온
어리석은 목자였지만 내년 추수 때만큼은
절대로 배고픈 자가 되지 않고 가득 쌓아놓은 공간의
주인이 될 각오를 하며 살게 하소서.
주께서 예비하신 하늘 집에 쌓을
곡식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말씀따라 행하기▶

그리스도인의
첫째 의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인품따라 행하기▶

어린애가 하는 짓을 하기엔
너무 크고
어른들이 하는 일을 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가 10대.
10대들이 아무도 하지 않는
영동한 짓을 하는 것은 이 때문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갈 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28장	다 갈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52 (요일 4장)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세 레 식	
	1.입교 2.세례:청소년 3.세례:장년	
찬 송 Hymn	391장	
기 도 Pray		노은숙 권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창세기 1:1-2	인 도 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 교 Sermon	하나님 이야기(1)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40장	다 갈 이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갈 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 본당 뒷편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11월 예배위원◆

일자	기 도	헌금위원	가족찬송	안내
6	김영길	박혜련		김교섭 정덕수
13	김종건	반혜련		
20	노은숙	방명아	이영성, 차현주	노은숙 정희자
27	박일영	백재성	정성수, 구현희	

◆11월의 교회력◆

주 일	예배와 모임
6	살롬, 익투스초청수요(9) 결식자급식봉사(12)
13	믿음의어머니기도회(15)
20	추수감사주일 세례식(20)
27	대강절 시작 선교회 총회

2005년 교회생활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1. 성경 1독만 하기(하나님 사랑)	*여러교회를 다녀 본 후 결정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2. 전도하지말고 대신 친절하자(이웃 사랑)	
3. 처음 만난 날 처럼(교우사랑)	
주일예배: 아동, 학생: 낮 12시 수요일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5 청년부: 토 오후 2시

- 오늘 세례식을 갖습니다.
<입교> 권지수, 박형길, 이규호, 조은유, 최하영
<세례> *학생: 김태웅, 이수정, 임성철, 정세정
*청년, 장년: 고명분, 김경수, 박종화, 이연주
-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를 거의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며 감사의 마음을 가져봅니다. 예배 후 감사주일 떡을 나누며 한 해 동안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음에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주일부터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대강절" 이 시작됩니다.
- 다음주일은 11월 한달간 모은 Silver Coin을 드리는 "이삭줍기주일" 입니다.
*반짝이는 은색만큼이나 도움을 받는 태국, 필리핀 어린이들 마음도 희망으로
윤이 낮으면 좋겠습니다.
- "바누아투 신학교 졸업생 선물" <축구공, 공기펌프 각 30개>
*신호등 하나 없는 동네, 문명보다 자연이 더 친숙한 동네, 특별한 놀이기구가
없어도 즐겁게 놀 줄 아는 마을에 축구공 하나를 커다란 선교입니다.
*각 선교회에서는 2005년 회비중 선교비로 \$100 씩을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남은 회비로는 2005년 송년을 위한 회원 친목으로 사용하여 즐거
운 한해를 마무리 하십시오.

◀착한 시인들▶ 발왕산에 가보셨나요 고두현

용평 발왕산 꼭대기
부챗살 같은 숲 굽어보며
곤돌라를 타고 올라갔더니
전망대 이층 식당 벽을
여기 누가 왔다 간다, 하고
빼곡이 메운 이름들 중에
통 잇을 수 없는 글귀 하나.

'아빠 그 동안 말 안드러서
꽤송해요. 아프로는 잘 드러께요'

하, 녀석 어떻게 눈치챘을까.
높은 자리에 오르면
누구나 다
잘못을 빌고 싶어진다는 걸.

아이들이란 존재는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높
은 곳에 올라도 무서움이거나
정복자의 거만함뿐인데 그 자
리가 바벨탑 높은 자리였음을
깨닫게 해 주는 아이들의 자세
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으로 세상을 본
다면 어디하나 하나님으로 향
한 길이 없는 곳이 없을 텐데
우리 눈엔 그 길들이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다음엔 아이들이 또 어떤 굉장
한 깨우침을 줄런지요?